

2022

통권 제33호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특집호

세종시의회 10년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SEJONG CITY COUNCIL

12

행정수도 도약 발판 마련한
세종시의회 10년

심상 의정 한 컷

36

42

제4대 의원이 전하는
각오 한 마디

세종시의회 10주년
시민들의 메시지

34

18

세종시민의 일상을 바꾼
조례 카드뉴스

의정포커스
세종시의회 4년간 의정성과

56

세종시에만 있는
이색 명소

94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88

의정뉴스

62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 새 희망을 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로 향하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주시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세종시의회 역대 의원님들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년간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 도약을 위해 초대와 2대, 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연구, 현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세종시의회가 계승·발전시킨 의정 철학은 세종시의회의 역사적 뿌리이자 기초 정신인 연기군의회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년이 지난 세월보다 더 목직한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은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를 탄생시킨 수많은 지역민의 땀과 눈물이 우리 의회 곳곳에 깃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초대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역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 세종시 인구는 조치원읍 4만 명을 합쳐 10만여 명에 불과했고, 정부 세종청사 개청도 이뤄지지 않은 시기여서 국가 계획도시라는 화려한 명성에 비해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은 열악했습니다. 초대 세종시의회는 도시의 기반을 닦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물론, 세종시의회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세종시의 자랑 중 하나인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첫발을 내디뎠고 충청권 시도의회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초대 세종시의회는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가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진 시기였습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는 2017년 4월 12일 보람동 신청사 개청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열린 제42회 임시회부터 친환경·스마트 의회 운영의 초석이 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LH와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해야 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발족한 것도 이 시기에 이뤄낸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세종시 도시 개발 단계 중 두 번째인 자족적 성숙 단계에서 젊은 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고,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한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는 후퇴와 반복을 거듭하지만 결국 진일보한 결실을 얻습니다. 2018년 7월 제3대 의회 들어 의원 정수가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의회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긍정의 변화를 발판 삼아 제3대 세종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낸 주역이자 이른바 '자치분권 2.0시대'를 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및 조직 정비 등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발 빠르게 이

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3대 의회 기간 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차원의 대내외적 역량 결집과 다각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세종시의회 10주년은 초대와 제2대·제3대 의회, 그리고 39만 세종시민들의 어제이자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세종시의회 10주년은 화합과 축제의 장이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짐과 연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어제와 오늘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의회의 10주년을 넘어 20, 30, 50주년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자치 분권을 이루기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세종시 출범을 한마음 한 뜻으로 공감해주신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1주년이자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를 출범했습니다. 39만을 넘어 40만을 향하는 세종시의 미래는 분명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종시민 모두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여정에는 여전히 많은 협力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진취적이고 역사적인 발걸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잇고 계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시의회는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전 국토가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따뜻한 응원과 격려, 진심 어린 충언을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세종시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해주시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종시의회인식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통권
제33호

CONTENTS

세종의 새 미래를 열다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특집

인사말
4 축사

- 12 **특집기획1**
국회 이전으로 성큼 다가온 행정수도 도약
- 16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세종시의회 10년사
- 18 **특집기획2**
세종시민의 일상을 바꾼 조례 카드뉴스
- 22 **특집기획3**
의회 역사를 장식할 제4대 의회 얼굴들
- 26 **제4대 의회 당선인 & 공약 리포트**
- 30 **INTERVIEW**
세종시민 5인에게 듣는 '의회에 바란다'
- 34 **세종시의회 10주년 시민들의 메시지**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10년 |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시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로

제3대 세종시의회 주요 소식



- 36 **특집기획1**
초대~제3대 의회까지 상임 의정 한 컷
- 40 **특집기획2**
다양한 기록으로 본 세종시의회 출범 10년
- 42 **특집기획3**
제4대 의원이 전하는 각오 한 마디
- 46 **INTERVIEW**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
제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

- 56 **의정포커스1**
세종시의회 4년간 의정 성과
- 60 **의정포커스2**
2022년 상반기 의정활동 및 성과
- 62 **의정뉴스**
- 75 **논평**
- 76 **5분 자유발언**
- 80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88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 90 **기고**
언론이 본 세종시의회
- 92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
- 94 **세종시에만 있는 이색 명소**
- 96 **의회 홍보 채널 안내**



강준현 국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우리 세종시의 출범 10주년을 가슴 깊이 축하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나 세종시의 탄생과 발전을 함께한 우리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의 빛나는 발전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종시는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며 경제·일자리·교육·교통·의료 등 수많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세종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고속 성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뛰어난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수한 입법활동과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갔으며,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회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모범적으로 열어갔습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외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의 요구가 중앙에서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중요합니다. 다가올 제4대 세종시의회 역시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종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과 함께 출범한 세종시의회가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습니다. 38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년간 시정 권력을 감시·견제하면서도 늘 시민 곁에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강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굳은 의지와 역량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출범 당시 인구 10만 명에 불과했던 세종시는 38만 도시로 우뚝 성장했고,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 지으며 정치·행정수도로써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제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가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의제를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민생현장을 누비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종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도덕성·전문성도 요구될 것입니다. 청렴 역량과 정책역량을 겸비한 실력 있는 지방의회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시민주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고 유능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제4대 세종시의회가 과정과 결과로써 이를 입증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만큼, 올해를 의회민주주의 성숙의 원년으로 삼아 국회와 세종시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 제도가 실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발굴하는 일에도 세종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책임과 사명을 짊어진 세종시의회가 어깨가 자못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은 세종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종시의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제4대 세종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의장님과 다른 모든 의원님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세종시 의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앙 행정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세종시의회가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고견을 받들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한층 높아진 시민의 자부심은 더 단단해졌고, 그 공지는 세종의 미래를 밝히는 힘인 동시에, 새로운 세종을 바라는 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종의 밝은 내일을 밝혀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전략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올해로 만 10살을 맞이한 세종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눈부실 청년기에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더해 끊임없이 개혁,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창조와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융성한 도시는 조화와 연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도시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예측하고 기획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 힘을 길러 미래를 향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의 철학이자 혼인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찬란한 세종대왕의 유산은 세종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수도 그 이상의 도시,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도시 곳곳에 품격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길에 세종시 의회의 현명한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사무직원의 인사권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인 동시에,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종시의회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층 높아진 위상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 생활 속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시민 가까이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늘 시민 곁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의회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저도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구)연기군의회로 출발하여 2012년 역사적인 세종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올해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시의회를 동지 삼아 세종시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제4대 세종시의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축하와 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우리 세종시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의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제일의 행복한 세종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교육도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도록,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윤명성 세종경찰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경찰청장 윤명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의회 직원 여러분, 의회 출범 10주년 뜻깊은 날을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이래, 세종시정을 뒷받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 경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은 2021년 세종남부경찰서 개서와 자치경찰제 시행, 세종경찰청 신청사 예산확보, 관내 지구대 신설 등의 결실로 이어졌으며, 2022년 세종경찰청이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세종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의회 의 모든 분께 세종 경찰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치안은 국가 행정력의 근간이자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한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열정에 보답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원년으로 시민 중심 열린 의정 활동과 선진 의회로의 도약을 바라며 세종 경찰은 더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고,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세종 경찰의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가슴으로 함께하는 시민 감동치안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어가는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는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 대응하는 등 작지만 강한 세종 경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가 하나 되는 소통 치안의 환경 조성을 견고히 하여 시의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시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변화의 전환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착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만들어오신 역사의 주역과, 만들어가실 제4대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욱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세종 경찰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존재는 국가균형발전의 등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550만 충청인과 2,500만 지방민, 전국의 분권·균형발전 활동가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이제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출범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 조성한 금강 보행교 전망대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면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와 빌딩, 중앙녹지공간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국회사중의사당 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시의 안정감과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읍면지역의 변화도 남다른니다. 조치원의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속속 준공되고 있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설치, 주택단지 추가 조성, 국가 산업단지 설치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세종시민 모두의 마음에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었습니다. 세종시 민관정의 하나가 된 행동과 실천이 이런 현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중단 촉구', '중앙부처 추가 이전 충청권 공동 성명서 채택', 2012년~2013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촉구 성명 발표' 등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선도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출범 10주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도약을 위해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정수도 개헌입니다. 헌법 명문화를 통해 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세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건설입니다. 행정도시 건설 초기 생활권별 자족 기능을 계획했는데 문화국제 교류, 첨단기식기반, 의료·복지 등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된다면 충청권역 내 다른 지역과 일부 기능 분담을 고려하더라도 자족기능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손잡고 행정수도 개헌,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건설을 위해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세종 10년의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행정수도 1000년으로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임효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박종권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출범 10주년을 주민자치회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대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4년 동안 지역사회를 선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2년 7월 1일 출발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안건을 의결하고 대의 의결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와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인구 39만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의회는 또한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일에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하셨고 이제 막바지에 이른 행정수도 완성은 39만의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에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여 세종시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주민자치회 700여 가족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완성된 세종시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길 소망하며 세종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세종시의회 의 또 다른 새 역사를 써 나갈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12년 7월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며 초대 세종시의회를 열었고,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며, 저는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우리 시는 올해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계획된 행정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행정수도로서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37만 명을 훌쩍 돌파한 세종시는 앞으로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국가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시민이 뜻을 같이한다면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딘가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매 순간 고민하고 움직이는 생동하는 의회, 단절과 밀실의 시대를 벗어나 소통과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 의회,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지혜롭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건 환경과 대응 체제를 되돌아보고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세종 시민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진심 어린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왕
전국이 · 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장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국회 이전으로 성큼 다가온 _____ 행정수도 도약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신행정수도 위한 결정'과 '세종시 수정안' 등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 출범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적 시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년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1

17번째 광역의회 도약 이후 10년의 여정

／ 기초와 입지를 다지다

세종시의회는 초대 원 구성 이후 시 행정과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협력을 통한 위상 정립에 주력했다. 2012년 8월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수목원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행사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정기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2012년 10월 세종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사업장 방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3년 2월에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이 발족했다. 당시 로컬푸드 연구모임은 로컬푸드 생태계를 진단하고 농산물 공급과 유통 활성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올해 1월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답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2013년 2월에 개최된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협약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 상생 발전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2013년 4월에도 세종시의회는 당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3월 13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신청사 시대 새로운 변화

세종시의회는 2017년 2월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열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 시기다. 2017년 4월 신청사 개청 이후 첫 '세종시 이통장 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2017년 5월에 열린 제42회 임시회부터 친환경·스마트 의회 운영의 초석이 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회의 과정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2017년 6월에는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율적으로 육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시기에 LH와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해야 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제3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교육안전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의회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제3대 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기반으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소통을 강조했다. 2020년 8월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한 데 이어 2021년 5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예산안 심의 자료를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2.0' 시대에 연착륙하기 위한 자치법규 및 조직 정비 등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올해 2월에는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 교류를 통해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해 주목을 받았다.



2

국회법 개정 앞두고 '지방의회 연대' 빛났다

중앙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이전으로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신 행정수도 위한 결정'에 가로막혀 행정수도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나 법률 재해석 검토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담론'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초대 의회부터 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요건 충족'을 전략적으로 요구했다.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전국시도의회회장의 회의에서 세종시의회의 제안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16년 7월에는 세종시의회 제38회 정례회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8년 10월 제52회 임시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다. 2019년 12월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에서 '최대 규모 국회 이전론'이 주목받은 데 이어, 그해 12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2021년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 국회 분원 설치가 총 147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과 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각각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의 연대와 지지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세종시의회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과 협의회가 세종시 어진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향후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국회 간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3

자족도시의 미래를 그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개헌과 법률 규정 등 방법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주요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운 만큼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다만, 세종시의회 등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 제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의회는 2030년 도시 완성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세종시의회 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는 충청권 7개 대학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유치 용역 실행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 대학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종시 보통교부세 연구모임은 국가 주도로 건설된 관내 주요 시설물 관리비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기한 폐지와 장기적으로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이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방안으로 도출됐다.

특히 현재 LH와 행정심판 중인 행복도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 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한 공문화도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이뤄졌다. 2020년 5월 제62회 정례회 당시 2013년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근거로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힘써왔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구매 촉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녀 양육 여건 조성 등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행정수도와 자족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창업 환경 구축,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없는 선순환 복지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향후 인구 증가세를 고려한 주택 적기 공급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지역의 발전방안도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발전의 속도 못지않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성장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운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세종시의회 주요 연혁

- 2012.07.01. 초대 의장단 선출
- 2012.07.06. 제1대 의회 개원
- 2014.07.09. 제2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2014.07.15. 제2대 의회 개원
- 2016.06.30.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2017.04.12. 보람동 신청사 개청식
- 2018.07.01.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2018.07.02. 제3대 의회 개원
- 2020.07.01.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한눈에 보는

세종시 의회 10년사



초대 의회

- 2012. 07. 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회 임시회 개최
- 2012. 07. 06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의원 정수 13명)
- 2012. 08. 23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2년도 정기회 세종 개최
- 2012. 09. 10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 2012. 09. 14 세종시의회 첫 의원 연찬회
- 2013. 07. 01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 2013. 09. 11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제2대 의회

- 2014. 07. 09.~10.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 2014. 07. 15.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의원 정수 15명)
- 2015. 07. 08.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 2016. 06. 30. 제2대 세종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 2016. 07. 20.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 2016. 09. 01. 역대 의장단 초청간담회 개최
- 2017. 01. 20.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
- 2017. 02. 02. 보람동 신청사 이전
- 2017. 04. 12. 보람동 신청사 개청식 개최
- 2017. 10. 07.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거리 홍보
- 2017. 10. 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 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문 채택
- 2018. 01. 25.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
- 2018. 02. 16. 세종시의정회 초청 간담회 개최



제3대 의회

- 2018. 07. 01.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 2018. 07. 02.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의원 정수 18명)
- 2018. 09. 19.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2018. 10. 30. 국회사무처에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 전달 및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
- 2019. 01. 28. 충청권 시도의회회장협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건의
- 2019. 06.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 2020. 03.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평가 '전국 3위'
- 2020. 07. 01.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 2020. 11. 10.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2020. 11. 25.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합의
- 2020. 12. 09.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환영 성명서 발표
- 2021. 03. 18.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 2021. 05. 27.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2021. 09. 28.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 방문
- 2021. 10. 29.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법제처장 표창) 수상
- 2022. 0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주민조례 발안제 시행
- 2022. 02. 03. 광역의회 최초 국회와 인사 교류 통해 입법자문위원 배치
- 2022. 04.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 2022. 04. 25. 의원 정수 18명 → 20명으로 확대
- 2022. 05. 04.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첫 입법평가 실시
- 2022. 05. 12. 제주도의회와 상생 협력 협약 체결

ORDINANCE
NEWS

세종시민의 일상을 바꾼 _____ 조례 카드뉴스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은 의정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의회의 대내외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조례들을 수상 실적과 제정 의의 등을 고려해 소개한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한국청소년재단 주관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
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어린
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활정책연구원 주관 제3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수상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신분증을 발
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성실 시
공과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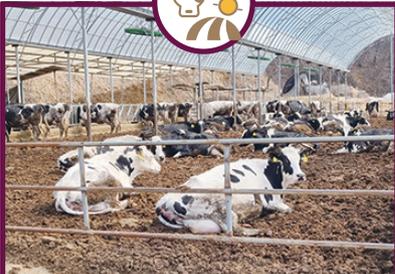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
도록 지원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2020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친환경 부문
광역의회 최우수 의원 선정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개별 분리·
저장하여 공공 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처리 수수료를 20% 감면하
고, 공동 고액분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30%를 감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대상 수상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
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마
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RDINANCE NEWS

세종시민의 일상을 바꾼 조례 카드뉴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지방 의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 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 도입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 도모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 마련. 임신부 및 영유아, 장애인들의 생명권 보호 기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시민 투표 1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축제 또는 박람회 개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우수상 수상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예산 편성 과정 등에 시민 참여 보장, 시민주권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권리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과하지
않았던 교통부담금 기준 마련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
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
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 사업
의 투자재원 확보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에 대한 위생적 관리 기준
마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읍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
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화 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
으로써 도시 정체성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책 마련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
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7
선거구



최원석 **국민의힘**

주식회사 에스와이 식음료사업부 이사
중국 천진유한공사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장

8
선거구



이순열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9
선거구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10
선거구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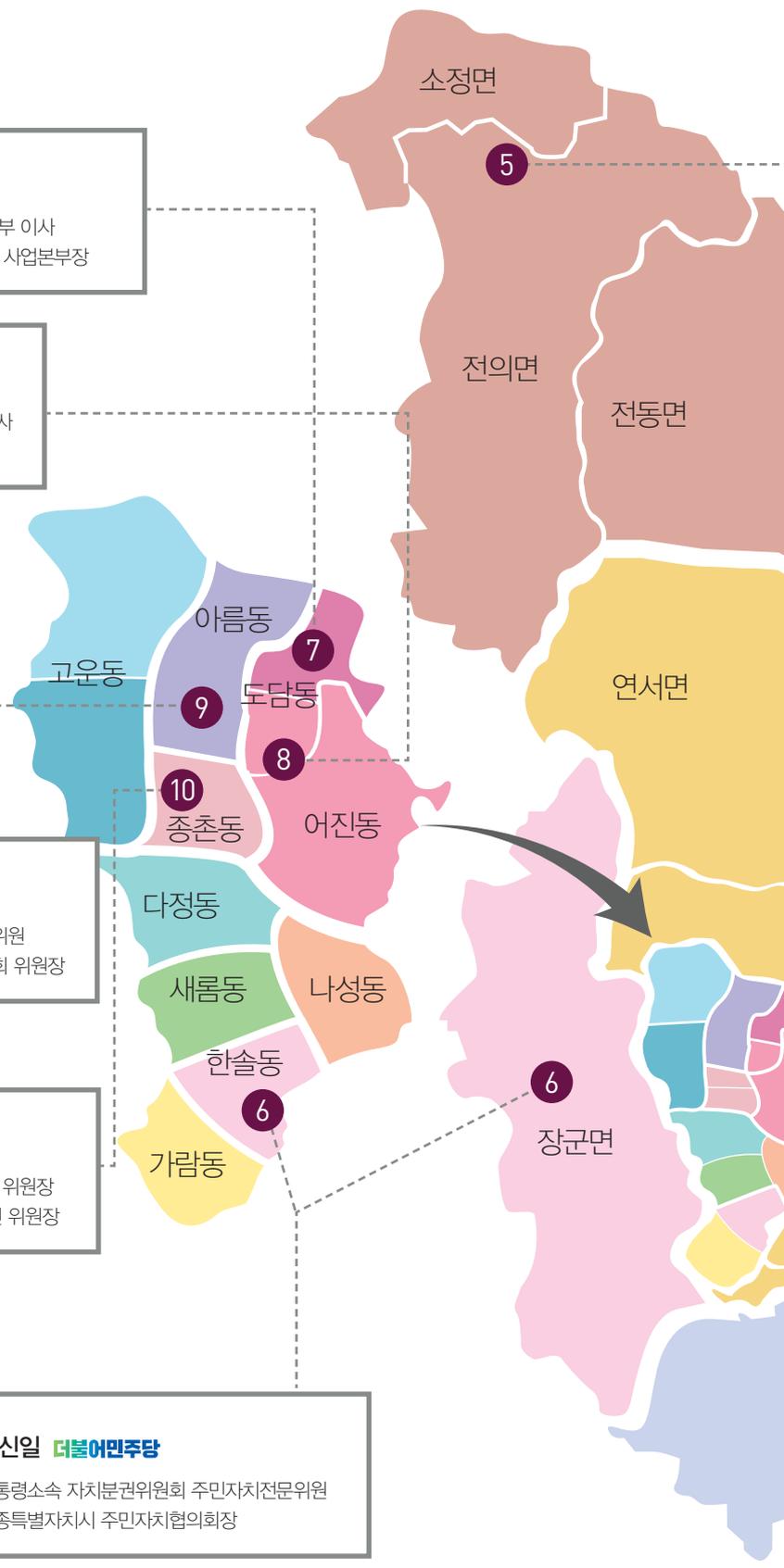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청년 위원장

6
선거구



안신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세종시
의회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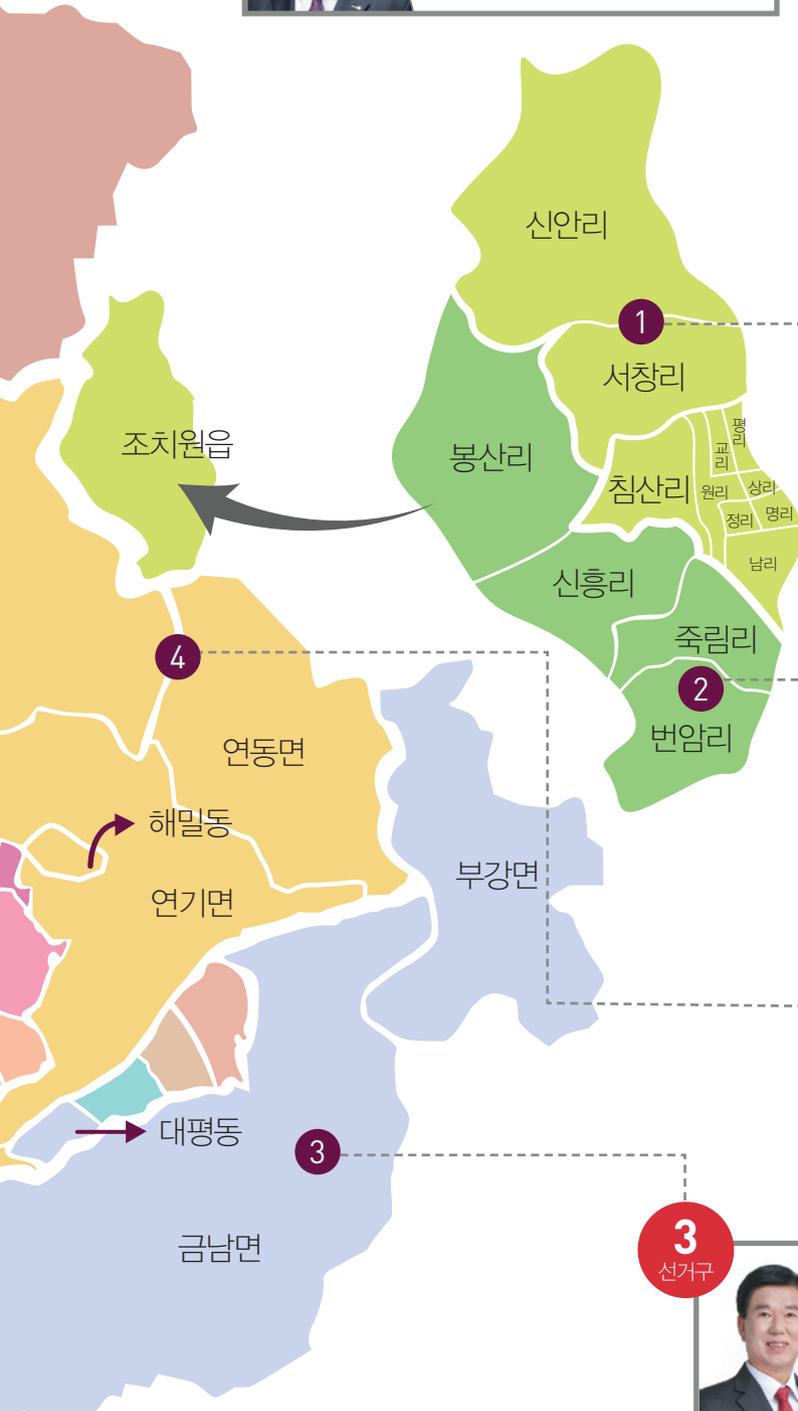
의회 역사를 장식할 제4대 의회 얼굴들

1선거구 ~ 10선거구

5
선거구



김학서 ■ 국민의힘
SK그룹 24년간 근무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 및
도농균형발전 특별위원장



1
선거구



김충식 ■ 국민의힘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역대표 전국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협의회 조치원읍 협의회장

2
선거구



김광운 ■ 국민의힘
퍼블릭뉴스 세종본부장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

4
선거구



윤지성 ■ 국민의힘
한국학원총연합회세종시지회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3
선거구



김동빈 ■ 국민의힘
금남면 발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프로필 자료 출처: 세종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 공보

12

선거구



김재형 더불어민주당

예비역 육군 소령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더혁신위원회 위원장

11

선거구



이현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장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8

선거구



박란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책국장
주식회사 바젤하우스 대표

16

선거구



김현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연합회장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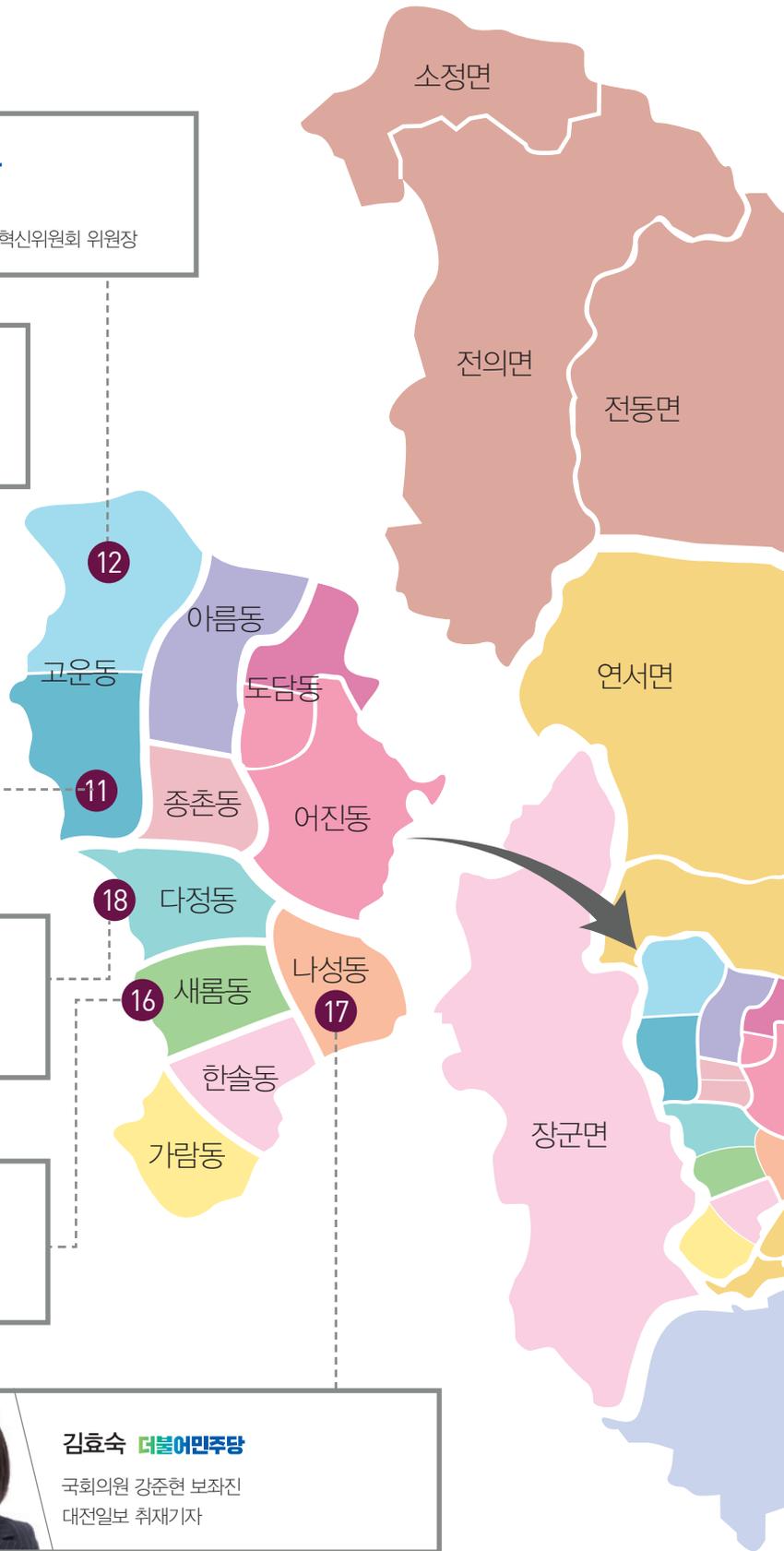
17

선거구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 보좌진
대전일보 취재기자



의회 역사를 장식할 제4대 의회 얼굴들

11선거구 ~ 18선거구, 비례대표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비례
대표



이소희 **국민의힘**

여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예금보험공사선임조사역

비례
대표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협의회 감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13
선거구



유인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주민자치연합회장

14
선거구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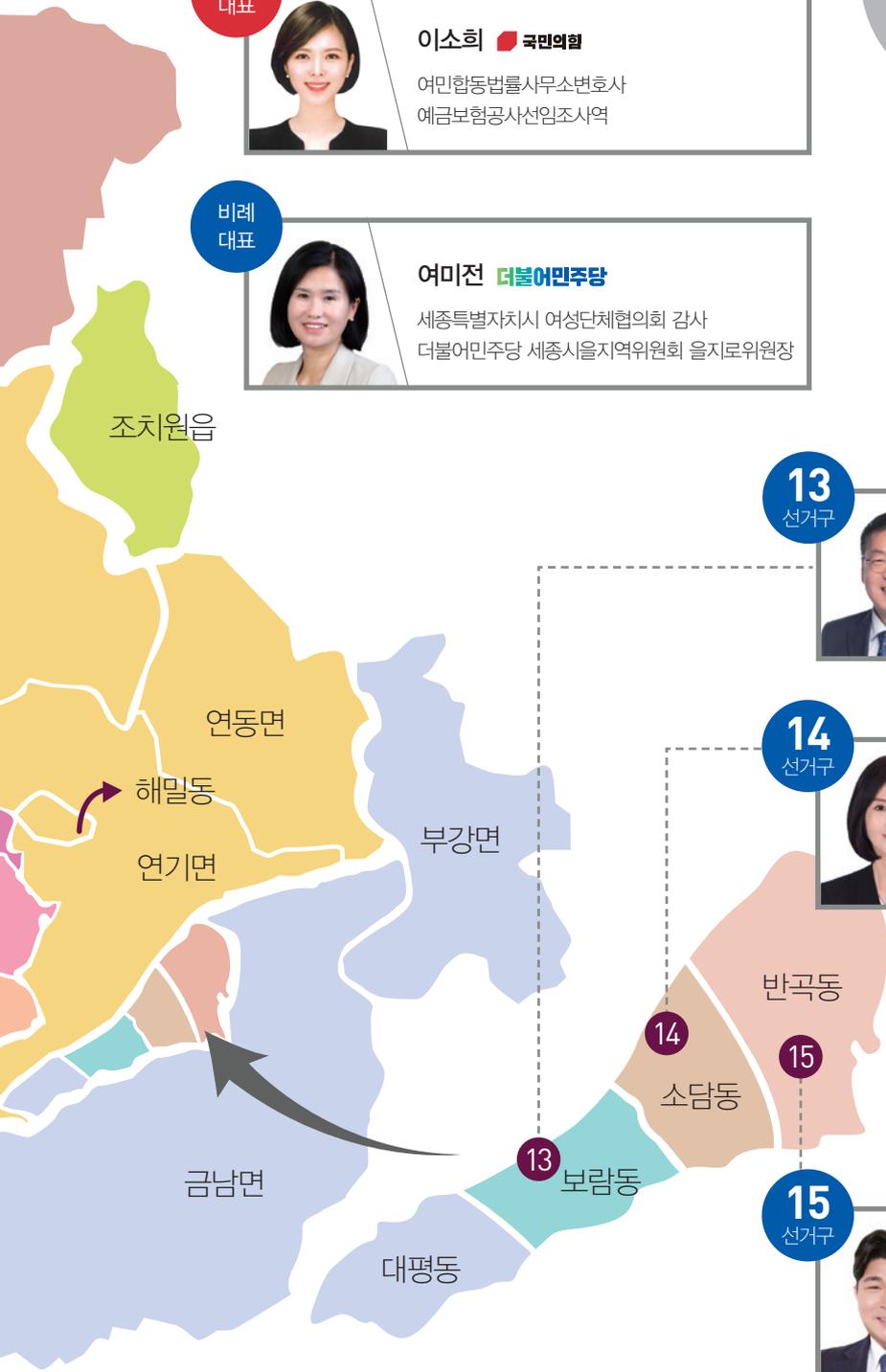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부회장
국회의원 강준현의원실 비서관

15
선거구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운영위원



*프로필 자료 출처_세종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 공보

새로운 역사를 장식할 제4대 의회 당선인 & 공약 리포트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당선인 20명이 최근 의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쇄신의 행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종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새 시대를 맞게 될 제4대 의회 당선인들의 이력과 공약 등 면면을 살펴봤다.



평균 연령 42.8세 '더 젊고 균형 잡힌 의회'

세종시는 전국에서 주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젊은 도시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4대 의회 당선인들의 평균 연령은 42.8세로 '젊은 의회'로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은 제3대 의회의 49.3세보다 6세 이상 낮아졌다.

실제로 당선인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 5명, 40대 5명, 50대 9명, 60대 1명으로 30~40대와 50대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최연소 의원과 최고령 의원의 나이 차이 역시 28세로 줄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 만큼 젊은 정치 감각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의회 운영의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달라는 민심이 엿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번 당선인 가운데 20대 정치 신인과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없을 뿐 아니라 당선인 소속 정당 비율은 13:7, 남성과 여성 비율도 12:8로 제3대 의회에 비해 '솔림 현상'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선 의원의 수가 역대 가장 적은 3명이어서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감 확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언론인부터 법조인까지 다양한 이력 보유

재선에 성공한 상병현·임채성·이순열 당선인을 제외한 제4대 의회 당선인들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민 자치의 최일선에서 성숙한 자치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직을 수행했던 제13선거구 유인호 당선인과 세종시 이통장협의회 조지원을 협의회장을 맡았던 제1선거구 김충식 당선인을 비롯해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에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제6선거구 안신일 당선인,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제16선거구 김현옥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제3선거구 김동빈 당선인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공동대표에 이어 금남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중앙 및 지역 정가에서 탄탄히 입지를 다져온 당선인도 있다. 제14선거구 김현미 당선인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제11선거구 이현정 당선인의 경우 제3대 전반기 의회 당시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제5선거구 김학서 당선인 역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 및 도농균형발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제15선거구 김영현 당선인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국청년당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제18선거구 박관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책국장 출신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미전 당선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 출신이다.

이번 당선인 가운데 언론인과 법조인 출신도 포함됐다. 제17선거구 김효숙 당선인은 대전일보 취재기자로 활동하다 강준현 의원 보좌진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으며 제2선거구 김광운 당선인은 퍼플릭뉴스 세종본부장 출신으로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해왔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소희 당선인은 세종시의회 역대 첫 변호사 출신이다.

이 외에도 제4선거구 윤지성 당선인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세종시지회장 및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제7선거구 최원석 당선인은 주식회사 에스와이 식음료사업부 이사로, 김학서 당선인은 SK그룹에서 24년간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본 세종의 미래

지역 격차 해소와 인프라 확충 당선인들의 선거 공약은 제4대 의회의 의정 목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지역구 의원 당선인 18명과 비례대표 당선인 2명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내걸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정책 공약의 지향 가치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표심으로 표출된 만큼 당선인들의 공약 이행 여부는 향후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4대 의회 당선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이은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전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물 개선을 비롯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에 필수 요소인 인프라 확충 공약이 주를 이뤘다. 김충식 당선인은 조치원에 공공도서관 및 조치원문학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광운 당선인은 죽림리 장기 방치 미완성 건축물 용도 변경과 빈압아파트 재건축을 공약했다.

김동빈 당선인은 세종고속버스터미널을 복합 터미널로 신축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대평동 어린이 전용 체육놀이 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학서 당선인은 젊은 인구 유치를 위한 스마트 그린아파트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소정면 제3유류 저장창고 회수 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주요 공약사항에 담았다.

안신일 당선인은 장군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기에 설립하고 금강 둔치에 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해 건설 10년 차를 맞은 한솔동의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원석 당선인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 노선에 도담(충남대병원)역 추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순열 당선인은 세종시립미술관 건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언론·미디어 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또한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공약도 다수를 차지했다. 임재성 당선인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세종-대전’ 반석 구간 도시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현정 당선인은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단계적 무료

화와 고운동 대중교통 버스 노선 정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광역급행버스 운행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재형 당선인은 고운동 중심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와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영현 당선인은 오송역으로 바로 가는 BRT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현옥 당선인의 가람·새롬 IC 신설과 김효숙 의원의 수요응답형 버스 2생활권 증차 및 이동 범위 확대, 박란희 당선인의 다정북로-당암길 연결도로 신설 및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 다정 정류장 설치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효숙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교차로 방향별 차량 수에 따라 신호가 바뀌는 감응형 교통신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상권 회복과 문화체육 진흥 상권을 살리고 문화와 체육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공약도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윤지성 당선인은 해밀동과 연서·연기·연동면을 연계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해밀동 공실 상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상병헌 당선인은 범지기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인호 당선인은 수변 상가 및 중심 상가의 업종 규제를 완화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강보행교와 보람동 중심 상권을 연계한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김현미 당선인 역시 금강수변공원 상가의 업종 규제 완화와 소담동 문화상생거리 조성에 대한 구상을 공약화했다.

이뿐 아니라 김충식 당선인의 조치원 시장 환경 개선을 비롯해 이순열 당선인의 방축천 주민 어울림 축제 및 플라마켓 활성화, 임채성 당선인의 종촌동 마을 축제 및 문화축제 활성화와 종촌동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박란희 당선인의 다정 문화축제 정기 개최가 공약에 포함됐다.



교육과 안전, 보육 체계 개선 제4대 의회 당선인들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최고 출산율을 기록 중인 세종시의 강점을 반영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동빈 당선인의 세종시립병원 설립 추진과 윤지성 당선인의 초등 돌봄교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김하서 의원의 전동면 초등학교 학생 증설을 위한 조례 제정, 안신일 의원의 사회적 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가 대표적이다.

상병헌 당선인은 아름동을 교육특화지역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가칭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현정 당선인은 횡단보도에 LED 조명 설치와 고운교육문화벨트 조성 및 스쿨존에 픽업존 설치, 김재형 당선인은 고운동 어린이 전문병원 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체험공간 및 숲유치원 설립 유치, 유인호 당선인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앞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와 학생 체험 학습비·체육복비 전원 무상 지급 추진, 마을 자원을 활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공약했다.

또한 김현미 당선인의 아이돌봄 안전망 및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와 지역형 연령별 맞춤형 스포츠 돌봄 지원, 김효숙 당선인의 나성초중 앞 보행 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회전교차로 횡단보도에 LED 설치, 김현옥 당선인의 가득초승하차 문제 개선과 다문화가정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민 주도 육아협동조합 설립 등도 주요 공약 과제다.

비례대표 당선인 2명은 지역구에 한정되지 않은 세종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미전 당선인은 국립민속박물관 단지 조성 및 중앙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세종법원과 세종의료원 설립 추진을, 이소희 당선인은 세종시 소재 대학교 채용형 계약학과 신설과 소상공인 종합민원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해 소상공인 여성 출산 시 임대료 일부 지원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목! 이색 공약

- 김충식 당선인 '행정수도원안사수 투쟁기념탑 건립'
- 윤지성 당선인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 지원'
- 안신일 당선인 '장군·한솔 도농상생 시범마을 추진'
- 이순열 당선인 '청년과 마을이 문화로 만나는 플랫폼 구축'
- 이현정 당선인 '상가 공실 활용 로컬푸드 소형매장 단계별 입점 추진'
- 유인호 당선인 '크린넷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경감책 마련'
- 김현미 당선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
- 김영현 당선인 '200개 기업 유치(상장기업 최소 5개)'
- 김현옥 당선인 '명품 육아도시 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 박란희 당선인 '인공지능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가족형 공유 목공소 설치',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거동 불편 환자와 어르신 등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추진'



제4대 의원 당선증 교부식



세종시민 5인에게 듣는 의회에 바란다

01 청년

시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세요

민소연



민소연(21)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공공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공공사회학전공은 기존 사회학에서 소통에 중점을 둔 학문으로서 지방자치 역시 중요하게 다룬다.

“올해 첫 투표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선거가 전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공약, 유세, 투표 등 모든 과정을 관심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전공 수업 때 교수님들은 세종시의 사례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지역의 조례나 제도, 정책 등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공부했다. 더구나 지역의 정책이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 특성상 세종시의회 관련 자료를 자주 찾아 접했다.

“세종시는 줄곧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고, 그런 노력이 모범적인 신도시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민소연 씨는 투명한 예산심사를 세종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행정이나 법률, 제도의 사각지대와 어두운 부분을 찾아보게 되는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꽤 눈에 띄었다고 한다. 시의회가 시민과 더 자주, 더 많이 소통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녀는 말한다.

“10년간 훌륭한 도시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영란(67) 씨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해 전동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다.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살다가 결혼한 딸과 가까이에서 지내려고 세종으로 이사했다. 요즘은 월, 수, 금요일에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하는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일산에 살 때는 복지만큼은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살아보니 일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하면서 돌아다녀 보니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영란 씨는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민간 상업건물 가운데는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고장 난 시설을 고치지 않고 폐쇄한 채 두는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한다. 또 주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턱이 높아 전동휠체어가 갈 수 없는 구역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탓이라고 박영란 씨는 이야기했다.

그래서 박영란 씨는 세종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쨌든 장애인 정책이나 시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은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는 시의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또 행정에서 제대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역시 시의회의 역할인 만큼, 시의회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은 시민이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았으면 합니다.”

박영란 씨는 또 세종시의회가 지역의 인구 특성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많은 시민이 이전에 살던 지역과 세종시를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전국 최고’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종시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인이자 장애인인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02 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세상을 함께 봐주세요

박영란



소상공인 03

더부지런히
시민과 만나주세요

양창준

양창준(53) 씨는 종촌동에서 9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랜 기간 힘들었지만, 4월 중순부터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배달 영업을 하지 않아서 영업 제한 영향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왜 배달을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배달 영업을 하려면 큰돈을 들여 조리시설을 바꿔야 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만큼 손님이 늘었다고 한다. 힘든 시기가 지난 만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장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가게에는 종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이 종종 들러서 식사하시고 민심이나 상인들 목소리를 들곤 했습니다. 저도 상인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상인들 요구를 자세히 설명해드렸고요.”

양창준 씨는 상인들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가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이었다고 전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로는 그대로 두어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녁 시간대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을 2시간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이야기했다.

“이제 10년이 된 도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보완하고 개선하면 분명히 시민의 지지가 있을 겁니다.”

세종시에서 나온 자란 양창준 씨는 지난 10년을 성장기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데도 시의회가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주길 당부했다.

“시 행정은 시의회가 정한 제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지역 곳곳을 더 세심히 살피고 시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의회가 부지런히 만큼 우리 세종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큰 노력을 해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더 부지런히 시민과 만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4 학생

힘들고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진혁



이진혁(17) 군은 세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업에 바쁜 고등학생이 시의회나 시의원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진혁 학생 역시 그랬다. 자신과는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최근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붙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 ‘우리 지역 시의원은 누가 될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다 교복 무상 지원이나 복장 자율 확대 같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어린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지내지만, 어른들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적 상황 가운데는 분명히 시의회의 도움으로 개선될 부분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였다.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할 힘겨운 삶을 보듬어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면 좋겠다는 이진혁 학생의 바람이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말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05 여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혜경



14년 전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온 이혜경(53) 씨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보조사,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남을 돕는 일이라서 보람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10여 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요양보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복지 인프라나 시설은 좋아졌는데,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혜경 씨는 세종시의회가 요양보호의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세종시는 서울이 부럽지 않은 도시가 되었어요. 부족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 그리고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입니다.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해 세종시의회의 역할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 10주년 시민들의 메시지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세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모아 소개해 드립니다.



오수정
세종시 대평동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꼭 필요한 **앞선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다른 의회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회를 바랍니다!

#앞선 정책 #모범적인 모습 #미래 선도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전강욱
세종시 종촌동 · 🌐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금 더 세종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발전하길 응원해봅니다.

#세종시민 대표기관 #시민의견 경청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김세한
세종시 산울동 · 🌐

세종시의회 출범이 어느새 10년이 되었다니, 더 나은 세종시를 위해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20년, 30년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더 나은 세종시 #함께하는 의회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김송이
세종시 나성동 · 🌐

세종시 의회 출범 10년 넘 축하드려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쭉 함께하길요!

#균형 #시민공감 #소통

공유하기

김민지
세종시 아름동 · 🌐

출범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시민과의 소통...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 #적극적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황민호**
세종시 도담동 · 🌐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종시가 더욱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시민들과 많은 소통으로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활기와 에너지 넘치는 도시 #시민소통

👍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최소라**
세종시 도담동 · 🌐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정말 축하해요!
세종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눈과 귀 #살기 좋은 세종시

👍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백소현**
세종시 해밀동 · 🌐

세종시의회가 있어 든든합니다.
더 나은 세종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소통과 끈은 반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주년 축하합니다.

#많은 소통 #끈은 반영

👍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김기문**
세종시 주민 · 🌐

출범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의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의회

💬 댓글 ➦ 공유하기

 **장윤미**
세종시 주민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 축하합니다. 시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소통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의회 #소통 확대

👍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문금옥**
세종시 주민 · 🌐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

👍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세종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시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로!

초대~제3대 의회까지

싱싱 의정 '순간 포착'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금씩 나아간다.'

세종시의회가 걸어온
10년의 역사를
주요 열쇳말로 묶어
살펴봤다.

1	3
2	4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 (2012.7.6)
2.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 (2014.7.14)
3. 3대 개원 기념식수 (2018.7.2)
4. 개원 전 의원 기념촬영 (2018.7.2)



주요 열쇳말로 본 세종시의회

1

초심 다짐했던 역사적인 개원식 풍경

지난 2012년 7월 6일 초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데 이어, 2014년 7월 14일 제2대 의회, 2018년 7월 2일 제3대 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회 운영을 알렸다. 초대 의회는 세종시 출범에 맞춰 별도의 선거 없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기초 및 광역의원 가운데 희망자들로 원을 구성해 개원함에 따라 2년 임기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원 정수는 초대와 제2대 의회까지 15명, 제3대 의회부터 18명으로 3명 증원, 제4대 의회 들어 20명으로 2명이 늘었다.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

2

보람동 신청사 개청으로 새 시대를 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6일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기인 제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연 첫 회의이다. 이후 2017년 4월 12일에 세종시의회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2대 후반기 의회 슬로건인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라는 의정 목표가 담긴 현판을 설치해 의미를 더했다.

- 1
- 2
- 3

1. 보람동 신청사
2.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의 (2017.3.6)
3. 세종시의회 개청식 (2017.4.12)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금씩 나아간다

3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발걸음

초대와 제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결의대회, 거리 홍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선언식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최적으로 충청 권역이 부상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범충청권 민·관 단체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 활동이 큰 주목을 받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세종시 전국 시군구 의회대표 공동선언
(20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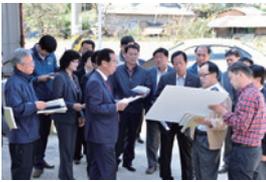
- 1
- 2
- 3
- 4

1.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9.8)
2. 행정수도 개헌 의원 범충청권 결의대회 (2018.1.25)
3.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 (2018.4.12)
4.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 (2018.10.22)



- 1 2
- 3 4

1. 주요사업장특위 현장방문 (2012.10.15.)
2.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현장방문 (2014.3.19.)
3. 의원연구모임 현장방문 (2015.6.11.)
4. 2019년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2019.5.21.)



국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
국회세종의사당 통과 (2021.8.24.)

초대~
제3대 의회까지

4

역사적 전환점 맞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국회 분원 설치하는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회가 의정 목표로 삼은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제3대 의회 들어 그간의 노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움직임으로 가시화되었고 2021년 9월 28일에 비로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5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 방문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찾아 나섰던 순간들이 지난 10년간 촬영한 여러 사진 속에 담겨 있다.



- 1 2
- 3 4

1.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2019.9.20)
2.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0.7.14.)
3. 세종의사당 촉구결의 (2020.11.25.)
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 방문 (2021.10.6.)



- | | |
|---|---|
| 1 | 2 |
| 3 | 4 |

1. 연양초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2017.5.29)
2. 세종시의회 30주년 기념식 (2017.7.10)
3. 전의향교 어르신 의회방문 (2017.7.18)
4.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2021.7.2)



세대를 초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

7

세종시의회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대를 불문하고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소년 의회교실부터 전의향교 어르신 의회 방문을 비롯해 의회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1년 7월 2일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연기군의회 시절 의원과 세종시의회 전·현직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년간 사진에 담긴 기록들

- | | | |
|---|---|---|
| 1 | 2 | 3 |
| 4 | 5 | |

1.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2차 회의 (2015.3.13)
2. 읍·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2016.7.5)
3. 2016년 하반기 의정연수 (2016.10.19)
4. 의정비 관련 공청회 (2018.12.21)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6.2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6

연구와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년간 각종 연구모임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2019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선제적으로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기록으로 본 세종시의회 출범

10년

의안 번호 1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하루 최다 안건 처리 건수는?

 **212** 건

2012년 7월 1일 일요일에 열렸던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수. 당시 세종시 출범 이후 첫 공식 회기 운영에 따라 세종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의회 출범 10년간 총 안건 처리 수는?

단순 계산하면 1년간 평균 290여 건을 처리. 제1대부터 제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안건 처리 건수는 지속 증가.

2,916 건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장은?

유환준 의장



충남도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장직을 수행. 당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대내외 협력을 통한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침.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여성 부의장은?

이영세 부의장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의장단에 포함된 첫 여성 의원. 제3대 전반기 의회 제2부의장으로서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입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기록은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소중한 발자취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알아봤다.



역대 최연소 의장은?

이태환 의장 '만 34세'

2020년 7월 1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만 34세' 나이로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을 필두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한층 '젊은 의회'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SEJONG CITY COUNCIL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기는?

제42회 임시회

제2대 의회 후반기 고준일 의장 재임 당시 조치원 청사에서 현재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 이와 함께 국회와 같은 선진화된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첫 회기.



역대 첫 5분 자유 발언자는?

박영송 의원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초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 당시 발언 주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조치원에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었다.



10년간
5분 자유발언 횟수는?

385 건

회기마다 본회의 개최 시 현행 5명까지 5분간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 방식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5분 발언 횟수는 의정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됨.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특별한 각오

제 1 선거구

김충식 의원 국민의힘



행복한 세종시, 아름다운 세종시, 행복한 조치원, 아름다운 조치원을 위해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거 이전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건강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2 선거구

김광운 의원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 제2선거구(죽림리·번암리·신흥리·봉산리) 당선인 김광운입니다. 세 번의 고배를 마시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을 반영한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실망한 지역민의 민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민의 민심을 잘 살피고 찾아가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3 선거구

김동빈 의원 국민의힘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는 세종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 선거구

윤지성 의원 국민의힘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해밀동(산울동) 지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윤지성입니다.

시의원 선거에서 면 지역과 동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면 지역과 동 지역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 지역은 다자녀 가구 및 교육 복지를 이루고 면 지역과 동 지역을 통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신선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마을 계획단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다변화를 가져 마을을 보다 다양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듣고 지역민의 입장으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 선거구

김학서 의원  **국민의힘**



안녕하세요. 김학서 시의원입니다. 먼저 압도적 성원과 지지로 시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전의, 전동, 소정, 제5선거구 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의원으로서 소통으로 화합하는 세종, 그리고 도·농이 균형 발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8 선거구

이순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및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좀더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찾아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 평온한 일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6 선거구

안신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2년 세종시와 함께 출발한 첫마을. 세종시의 비전을 저의 비전으로 생각하며 금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동대표부터 시작한 일들이 시민의 한계를 넘어 마을의 한계를 넘어 세종시의회 의원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9 선거구

상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의 손발이 되는 의회이길 소망합니다.

제 10 선거구

임채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 제10선거구 당선인 임채성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대 의원으로서 많은 영·유아, 청소년, 학부모님, 시민분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복지·교통·문화·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소리까지도 경청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대 재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세종! 마을의 으뜸 중촌동!'을 일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7 선거구

최원석 의원  **국민의힘**



지역구 내의 나쁜 것과 불편한 것들을 개선할 것이며,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시의원,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특별한 각오

제 11 선거구

이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느덧 세종시의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임해주신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2 선거구

김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여기에 세종시의회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이 세종시에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직무실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앞으로 다가올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 선거구

유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보람동 주민과 세종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갖고 계신 권한을 양도해주셨으니 마을 속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대변하겠습니다. 성장과 더불어 내실도 튼튼해지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보람, 더 나은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 14 선거구

김현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강한 세종. 안전: 모두가 안전한 세종. 포용: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종. 번영: 일하는 의회 지속 가능한 세종.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 다양하고 유연한 정치, 시민에게 물어보고 토론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건강하고 따뜻한 세종 만들겠습니다.

제 15 선거구

김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제15선거구 김영현입니다. 저 김영현은 시의원으로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마을 민원 해결사로서 청렴과 쉼을 밑바탕으로 시민분들의 '확실한 心부름꾼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동네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제 16 선거구

김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 21년 이 되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 지속발전가능한 생태환경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지균형을 고려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세종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사례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발상은 ‘자신’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정치의 시작은 주변을 살피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시민과 함께 협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촘촘하고 투명할수록 단단해집니다. 혁신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 사회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없이 그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수준 높은 세종시민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소통창구의 유리벽을 깨트리 고 화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성장 동력은 공동체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재정립하고, 계층과 대상을 넘어서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세종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17 선거구

김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함께 걷는 젊은 정치’라는 슬로건처럼, 늘 시민과 발맞춰 소통하고,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시의원 결심부터 도전에 이르기까지, 첫 결심,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임기 4년 동안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18 선거구

박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원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종의 10년을 맞이하며 견제와 균형, 소통이 있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더 좋은 다정, 살기 좋은 세종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례대표

여미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 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세상은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가슴으로 새겨두고 발로 뛰며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민들 만나야 합니다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15명의 합치. 여기에 새로운 특별자치시의 기틀을 잡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 초대 세종시의회에 주어진 임무였다.

출범 1년 만에 이들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무려 343건이었다. 이중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총 108건으로 당시 전국 평균 입법 발의건수의 3배를 넘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끊임없는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고 여러 시·도 의원의 합치를 끌어냈던 유환준 前 의장을 만났다.

세종시의회 초대 의장

유환준

- 1991 | 초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2002~2006 | 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2006~2010 | 제8대 충청남도의회 제2부위원장
- 2010~2012 | 제9대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 2012~2014 |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 상임공동대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1
INTERVIEW

Q. 요즘은 주로 농사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하는 성격인데, 의정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니 몸과 마음이 갈 데가 없었죠. 농사일이 자식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묶어주고 따주고 할 일이 넘쳐요. 그래도 참 행복해요. 식물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돌봐주는 만큼 보답을 하고 커 주니까. 사람한테 쓰는 정성과는 다르게 말이지요.

Q.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첫 의장을 지내셨는데 세종시 기반을 잡을 때니까 난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 몸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기보다, 당시 우리 의회 상황이 특별했지요.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회에서 온 의원들이 섞여 있었고 광역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저를 포함해 셋이었습니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각자의 경험을 살리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았어요.

무엇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태동이란 말이죠. 난제들이 많았지요. 특히 북부권에서는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곳에 시청, 경찰청, 교육청 등이 가니까 소외되는 걸 걱정하는 게 제일 컸죠. 늘 육먹을 각오로 주민들 의견 반영하려고 큰 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Q. 당시도농 교류나 교육·의료 분야를 망라하고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젊은 공무원, 도시민들과 원주민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 경제 관념이 다르죠. 초대 의회에서 제일 잘한 게 로컬푸드였어요. 지역 농민이 재배한 농작물을 근교농업 형태로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가 세종시를 살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 불씨가 지금 싱싱장터가 된 것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행복청에서 직접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교육이 순서대로 건물만 짓는다고 다가 아닌데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

하도록 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입지를 결정할 때도 추진위원장으로서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도록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북부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Q.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의회가 생동감이 있어야 해요. 하는 일이 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은 머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해요. 활발하게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 고충, 건의 사항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되도록 말입니다.

주민들과 형님, 누님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이렇게 됐어'라고 응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또 '비판 없는 의회'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자주 밖으로 나와야죠. 주민을 대신하는 게 의원 하나하나의 몫이고, 원래 색이 다 다른 걸 합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의견이 단순해지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공무원 조기 정착이나 세종시 출범에 모두 머리를 맞대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화와 발전,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조차원 청사에서 이전에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당시 제2대 후반기 의장이었던 고준일 전 의원은 보람동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연기군의회 경험을 살려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역사에 의미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고준일 전 의장을 만나 연기군의회부터 세종시의회에 이르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

고준일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후반기)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제6대 연기군의회 의원
- 민중통합당 민원실 부실장
- 민주당 충남도당 총무국장

2
INTERVIEW

Q.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업을 이어가며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전 저의 정치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곤 하시는데, 그럴 때만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Q. 세종시의회의 전신인 연기군의회 의원도 경험하셨는데, 세종시의회와 연기군의회 시절 의정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는지요?

연기군의회는 기초의회여서 주민 생활을 가장 밀접한 예산 심사와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 사무에 한정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연기군의회 시절에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시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변화를 준비해야 했기에 세종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들이 적지 않았죠. 그 변화의 중심에 의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함도 큼니다. 그에 비해 세종시의회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다. 그 때문에 때로는 거시적이고 때로는 미시적인 안목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국가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광역 사무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회 출범 초기에는 그러한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초대와 2대에 걸친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크게 이바지했을 것으로 봅니다.

Q. 고준일 의장님께서서는 조치원 청사에서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여셨는데, 그 당시 소회는 어떠셨고, 신청사 건립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치원의회 청사는 연기군의회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의 땀과 의지가 담겨 있기에 조치원 의회 청사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죠. 다만,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 신청사와 함께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조치원 청사 시대를 마감해야 했는데요.

현재 보람동 신청사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동 신청사에는 집행부와 의회를 잇는 이동 통로가 있

는데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독립 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인 만큼 같은 목표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둔 지금이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 여론에 힘입어 세종시의 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Q.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세종시의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시민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어야 신뢰받는 의회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누군가 공익을 저해하거나 시민사회에 반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면 숨김없이 낱알이 공개하고 시민사회에서 평가받는 과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나아가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제4대 세종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세종시의회는 우리나라를 선도해야 할 세종시의 중요한 중심축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세종시 출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의 상징도시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넓고 깊은 안목으로 의정활동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의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겉으론 냉정해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잘해주길 바라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4대 의회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주길 기대합니다.

읍면 지역 발전은 자족도시의 출발점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당시 4만여 명에 달했던 조치원 인구를 흡수하면서 '인구 10만 명'에 달하는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조치원 제1선거구에서 제2대에 이어 제3대 의회에 입성한 서금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연기군부터 세종시 출범까지 오랜 공직 경험을 기반으로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읍면과 동 지역의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서금택 전 의장을 만났다.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

서금택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전반기)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눔과장
연기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사업소장)
연기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연기군(전동면장, 전의면장, 남면장)

3
INTERVIEW

Q.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회 10주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탄생한 도시로서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연기군 부터 이어온 지역민들과 함께한 투쟁의 역사뿐 아니라 세종시의 출범 취지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마다 올바른 국가 비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시는 충청권 주민들,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만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대와 지지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의 소망이 세종시의회 10년사 곳곳에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그러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Q.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실 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셨는지요?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조치원은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철도역인 조치원 역이 있는 우리 지역의 관문으로서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도시인 동 지역과 달리 조치원 지역의 성장 속도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미방치 건축물 중 하나였던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과 함께 이뤄냈고, 주민들의 도지재생대학 입학 등을 통해 조치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한 결과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치원 문화정원 조성, 조치원중학교 이전, 내창천 정비사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부활, 600평 미만의 건축 허가 권한 위임 등의 성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지난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9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다 퇴직한 후 심사숙고 끝에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간 중, 제 공약집을 보신 한 읍민이 “내 평생 소원이 별 좋은 날 집 앞마당에 빨래를 말려 보는 것”이라며 강원연탄공장 이전을 간곡히 부탁해왔습니다. 당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석탄 분진으로 평생

‘몸 고생, 마음 고생’ 하셨을 심정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후 쾌적한 조치원읍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강원연탄공장 이전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관련 연구모임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강원연탄공장 문제를 다각적으로 공론화했고 관계 기관과 당시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바라만 봐야 했던 아픔이 씻은 듯이 낫은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조치원읍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자신감과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곳을 수시로 찾아가곤 합니다.

Q.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정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의정 가치에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깃든 의정 목표와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다는 실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통과 현장, 이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세종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가치를 진심으로 숙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제4대 의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에 제4대 세종시의회가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린 만큼 농농복합도시이자 스마트미래도시, 나아가 정치·행정수도로 도시의 특색을 만드는 데 노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세종시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역사와 전통, 미래를 이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읍면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지역 역사·문화유산 발굴에도 역량과 의지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조치원 주민들을 위해 조치원 제2청사 또는 출장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Q. 끝으로 향후 어떤 활동 계획과 함께 세종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을 포함해 총 4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직에 몸담다 이제야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없지만, 조치원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힘이 닿는 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주신 조치원 주민들을 비롯한 세종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약속의 여정



제3대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였던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통과를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 순간을 함께했다.

이태환 의장은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건의문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과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제4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이태환 의장과 함께 제3대 의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봤다.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

이태환

-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후반기)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노무현재단(세종·대전·충남)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고려대학교 경성대학 학생회장

4
INTERVIEW

Q. 세종시의회의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던 2012년 7월 2일이 많은 세종시민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은 인구와 각종 재화 등의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2021년 9월 28일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님 등을 만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던 그 날의 기억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분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향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비상할 날개를 펼치게 된다면 국회 전체 이전의 날도 꼭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제3대 후반기 들어 의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한층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확보되면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 지방의회가 지적해온 것처럼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간다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먼저 지방의회 발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보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Q. 제3대 의회 기간 중 의회 위상을 높인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제처장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통틀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는 14개 지방의회에 포함된 점은 세종시의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상 조례인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세종시의회 초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의회 정신의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

민권위의 가치를 있는 기반 조례로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내일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입법 실적 분석 결과에서 세종시의회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와 의원 수 대비 발의 건수 모두 전국 광역의회 평균보다 2배 정도 많게 나타난 것이죠. 이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법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본분을 다했다는 점에서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동안 의회 경험을 토대로 세종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대 후반기 의회 표어인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소통'과 '현장 의정'은 시민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소통을 의정 철학의 1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시대적 소명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고 기존에 운영돼왔던 의정모니터단과의 소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만큼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제3대 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에 걸맞게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젊은 의회'로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도 도시 완성 단계로 접어드는 세종시의 성장 속도와 발전 방향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아 의회 역사에 남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종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아우르는 '코로나 이후'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명으로 확대된 의원 정수만큼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듬뿍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대 의회
주요 소식**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1
의정포커스

‘시민주권 자치와 균형 발전’의 중심에 서다

—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년간의 의정 기록 —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18년 7월 순조롭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젊은 의회’와 ‘전 연령대 구성’을 강점으로 시민 소통과 연구 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의회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 7월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역대 최연소 의장을 필두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면서 ‘젊은 도시에 걸맞은 변화와 쇄신’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제로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민주적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에 열린 제69회 정례회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예산안 심의 자료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지방의회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뿐 아니라 조직 개편과 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대 세종시의회가 펼쳐온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 의회 위상 드높인 대내외적 성과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 운동연대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세종시의회는 의원 1인당 발언 수와 입법활동 모두 3위를 기록했다. 두 부문에서 3위권 안에 든 건 세종시의회가 유일했다. 또한 불출석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국 평균을 넘어선 건의·결의문 발표 수로도 주목을 받았다.

세종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평가한 결과 역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세종시 내 8개 시민단체에서 구성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9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소통과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회 운영 의지 ▲적극적인 질의와 충분한 자료 검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시민 제보 운영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총평에서 ‘의원 대부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라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남겼다.

특히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주최로 진행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법제처장 표창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지역일꾼을 주민이 직접 뽑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 양과 질 모두 역대급 입법활동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 건수는 지방의회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정 지표로 활용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의 분산 역할 못지않게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한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회 운영에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년간 총 1,315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전체 처리 안건의 34%를 차지하는 45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이며 타 의회와 비교해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입법 활동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 등 제도 기반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지난 2019년 6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뤄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노종용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포된 조례의 오류를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세종시 제도의 법적 기준이 되는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 의원의 제안대로 전문인력 확충과 조문 검토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조례 조문 검토의 중요성과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된 의회 위상에 걸맞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지난해 9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2년마다 입법의 적법성과 조례의 실효성 등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입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평가 결과를 시장과 교육감,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누리집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평가 제도의 내실 있게 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6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32년 만에 처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다

99

／ 소통과 연대를 통해 열매를 맺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숙원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의회 전반 기부터 다각적으로 펼쳐졌다. 세종시의회는 2019년 6월 충청권 3개 시·도의회와 함께 시민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를 발 빠르게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을 통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32년 만에 처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제3대 세종시의회 최대 성과로 꼽힌다.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목표로 지방의회 연대와 국회 건의문 전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10월 제52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사무처에 전달한 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이 확보된 이후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와 채택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했다.

그 결과 2021년 9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회와 지방의회 간 연대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세종시의회 제안으로 합의한 ‘세종시 어진동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향후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국회 간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 주민자치와 행정수도의 미래로 향하다

주민자치는 공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정책지원관 선발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제72회 정례회에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와 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롯해 공무원 인사 및 근무 규칙 등을 처리했다. 제도 기반이 적기에 마련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었다.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첫날 사무처 직원들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 교류를 통해 의사입법담당관실에 국회 서기관을 입법자문위원으로 배치했다. 자치 입법 역량 강화와 입법평가 제도의 충실한 운영 지원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 국회와 세종시의회 간 소통과 정보 교류의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지난 4월 제4대 의회 개원에 앞서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했다. 세종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인 4명,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확대할 수 있어 6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상징도시로 출범한 만큼 주민자치 강화와 행정수도 완성에 진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초대와 3대 의회에 이르는 노력과 성과들이 제4대 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광역의회 입법 실적 분석 ‘전국 1위’

최근 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 실적 분석 결과에서 연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Big Hill Analytics’와 함께 17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9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 역시 22.68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많았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연평균 1건 미만 입법 실적을 가진 의원 명단에 단 한 명의 의원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 방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퍼포먼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2
의정포커스

세종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꼼꼼해진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 제정, 자치법규 등 세부 검토기준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10일부터 각종 의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방의회에서 논의하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며 의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객관성, 균형성, 전문성, 정확성, 명료성 등 기본 작성 원칙에 따라 표준양식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져 의안 심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 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 등에 대한 사무처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회기 운영 중 꼼꼼하고 체계적인 의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양 시도의회 상생발전과 상호 교류 협력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12일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양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제주도 의회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상생협력 협약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균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리증진 정책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4대 의원 당선인 의정설명회 개최

대회의실서
의회 운영 절차와 업무,
이해충돌방지법 등 설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설명회에는 제4대 의회 의원 당선인 20명을 비롯해 김덕중 사무처장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당선인들은 의회 운영 및 절차를 포함해 의회사무처 담당 업무와 임시회 일정 및 원 구성, 2022년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도와 관련된 청탁금지법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인사말에서 “초대와 제2대, 제3대 의회의 땀과 노력, 결실이 의회의 전통과 역사로 이어져서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당선인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 역량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성과로 38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석 증가 반영한 18개 선거구 확정 완료

제75회 임시회서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의원 정수 2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을 2개 선거구로 통합(제1·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제3·4·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12·16·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 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제75회 임시회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서금택 의원.



제75회 임시회 본회의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등록 접수

청사 1층 대회의실서
각 소관 부서별
제출 서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13~14일까지 양일간 1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등록 업무를 마쳤다.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의원 등록과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 겸직 신고 등에 관한 제출 서류를 접수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의원 등록 과정에서 제4대 의회 개원 일정과 원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의원 등록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3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제4대 의원 당선인 의정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7월 1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 4일 제4대 의회 개원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 등록 중인 유인호 당선인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2차 본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우수의정대상 시상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8건,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7건,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청과 교육청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3.24%) 증가한 총 1조 9,836억 원과 24억 원(0.3%) 증가한 8,72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강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많은 분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진 설명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 10명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시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4일 입법평가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고 첫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종미)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 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 평가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세종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사명감으로 입법평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미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중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세종시의회는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첫 입법평가 실시

조례 시행 효과의 객관적 검증 통해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

2022 제 1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종미 위원장





세종시의회 예산분석 및 결산검사 전문성 높인다

예·결산 전문위원 신설로 의회
자체 승진 및 후속 전보인사 단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발령

〈 2022년 4월 20일 자 〉

2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급 승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홍순제

5급 승진요원

의정담당관실 홍보기획담당 안영옥

〈 2022년 4월 25일 자 〉

6급 전보 및 승진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남진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여석환
의사입법담당관실 문건아(승진)

7급 전보 및 승진

의정담당관실 김은엽
의사입법담당관실 유재한(승진)

8급 전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수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4월 2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상설화로 예산·결산 분석 및 평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

세종시 올해 예산은 세종시청 1조 9,836억 원, 교육청 8,728억 원 등 약 3조 원 규모로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 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덕중 사무처장을 2급(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홍순제 운영지원담당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안영옥 주무관을 홍보기획담당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 인사는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 사명감과 자부심을 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본회의장서 모의 본회의와
의회 퀴즈 등 진행...
참샘초 5학년 22명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5월 9일 본회의장에서 참샘초등학교 5학년 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 보트엠(투표게임)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에서는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비슷하게 각각 의장과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건의안 상정, 건의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매점 설치'와 '다양한 동아리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교내 문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청소년의회교실(참샘초)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시민 소통 강화 위해
모니터링 인원 2배 확대
10~70대까지 전 연령대 구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4월 15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과 연령대를 확대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위촉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되었다.

특히 모니터단 공개 모집 시 참여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춤으로써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시민 생활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의회에 제안·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해 검토한 후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4대 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회 모니터단 위촉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 우수인력 대거 지원

4명 선발에 46명 지원해
11.5:1 경쟁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사위원회는 4월 26일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는 2022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접수 결과 총 46명이 지원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분석을 비롯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정책지원관은 올해 6월부터 2년간 근무한 후,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3명 임용장 수여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통해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0일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난 4월 7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등 의정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21일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2월 3일부터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회 파견 인력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조례안 검토를 비롯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과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은 지난 1995년에 국회 공채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 등 의회 고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간 상생 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른 국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국회와 인사교류

황현희 입법자문위원
파견근무를 통해 입법역량 강화

📷 사진 설명

2022년도 의회사무처 직원 의정역량 강화 교육 당시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이 국회의 역사와 운영 사항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무력 사용 중단 및 러시아군
즉각 철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반전 연대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단행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으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미국과 EU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전쟁 중단과 국제 평화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경제 제재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제국주의적 침탈과 강대국들의 횡포를 체험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자각의 목소리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세종 시립도서관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째 날 소양 교육 일정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의회 현황 및 지방의회 역할’과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의 ‘국회 현황 등 국회 소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렴문화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받은 데 이어 언론 대응 전략 및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예산 및 결산안 심사기법과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제 교육을 시행했다.

세종시의회는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위상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양일간 예산 심사기법 및
자치법제교육
‘이해충돌 방지법’등 강의 진행





세종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4월 4일 의정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이영세 의원과 유선진 회계사, 윤대건 세무사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 회계 전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강희동, 정인태, 장진섭 위원 등 총 7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태환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원식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결산검사 결과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열릴 첫 정례회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설명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후 환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 설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팩스(044-300-7219)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7~8월 집중 접수 기간도 마련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의원 일동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
작은 위로 되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1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북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통 분담을 위한 강원도 산불 피해민 돕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제4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개원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
‘개원 대비 단계별 실행방안’
직원 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제4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 의회 사무처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4대 의회 개원이 임박한 가운데 제4대 의회 개원 준비 단계별 실행방안 및 전략과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의정활동 방향 등 체계적인 개원 준비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두 차례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파악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과 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 준비 T/F별 토의 시간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 집행부 정책 및 사업 분석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자체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의정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환영!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21대 국회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5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의 결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입법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조성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과 지지 의사로 세종시의 새 미래를 밝혀주신 21대 국회의 의미 있는 결단에 38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모두의 염원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떼어 대통령 소속기관의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을 현시대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행정수도 조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여야 정치인들 역시 지방 소멸과 쇠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와 새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발판 삼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촉구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은 3월 14일 민관 합작 형태(SPC)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 자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최초 입주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은 3월 14일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과 사회공헌 등 건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ESG 경영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민간부문에 적합한 SDG 정보 및 측정방안 제공,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사업 적극 발굴 ▲구체적인 지표와 전략 마련 및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내외부 조직과 관련 예산 강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오송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조치원 발전 계기로 삼자



서금택 의원은 3월 14일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2년 준공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읍의 8개 리에 걸쳐 총면적 약 1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금택 의원은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오송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조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 ▲오송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 확충 검토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서금택 의원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차성호 의원은 3월 14일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 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육청, 21년도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 촉구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은 3월 14일 2021학년도에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 아름중 1지망 희망자에 대한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약속한 전학 조치를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할 것인지를 밝히고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상황과 아름2중이 준공되는 2학기에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아름2중 설립 이후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이 74.9%에서 98.2%까지 상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아름2중 신설이 원거리 통학 불편 등 학생들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교우관계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아름중 과밀현상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서 나타난 연쇄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 소멸 방지 위해 다차원적 실천전략 필요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은 3월 29일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과 관련해 읍면 지역 인구 30만 명 목표 달성이 현 추세라면 요원해 보인다고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읍면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전동면과 연동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각각 0.16과 0.18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희시설의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세종시 안전 분야별 불균형 개선해야



손인수 의원

손인수 의원은 3월 29일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 증진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후 자원 투입 과정에서는 시기와 기간별 점검으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시 특성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은 3월 29일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불법 노점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합법적인 노점 영업문화와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사각지대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푸드트럭의 사례처럼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법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1 — 의회운영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6.94%) 늘어난 95억 2,100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행정복지위 —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인 3월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기와 역할,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복지위는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 요구’를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사업 등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948억 2,014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요구액인 9,951억 7,540만 원보다 3억 5,526만 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서 8억 2,178만 원을 감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9개 사업에서 4억 6,652만 원을 증액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동료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3 — 산업건설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산건위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 7,915만 원(4.0%) 증액한 7,832억 9,186만 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금강보행교 인수 시기에 따른 ‘금강보행교 유지관리비’ 등 11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 원을 감액하고, ‘두무뜰 근린공원 내 시설 개선’ 등 9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 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건위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구 1건을 심사하여 17건을 원안 가결했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은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제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건의안 등 의결

교육안전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1건과 조례안 16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하며 단순 학생 수 감소를 재정축소의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8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8,728억 35만 원 규모다.

교안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새 학기 학교 방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과 학교 방역 인력 운영 등 방역사업비와 교육회복 지원비 및 예비비 등을 증

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 원 증액한 567억 4,686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안위는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용품함 비치 지역 확대와 조치원읍에서 전동면 일원 조천(지방하천) 내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퇴적 토사 및 유해 수목 정비 예산 등을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라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교안위 위원들과 세종시교육청, 시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 — 예결특위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및 교육청 '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세종시 1조 9,836억 원 교육청 8,728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 원(3.24%) 증가한 총 1조 9,836억 원과 24억 원(0.3%) 증가한 8,728억 원 규모다.

세종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13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총 32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 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적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 제4기 예결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손인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세종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 시민이 행복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행정수도특위 —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수특위)는 3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4일 행수특위 첫 회의에서 유철규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행수특위는 2020년 9월 21일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뿐 아니라 긴밀한 민관 공조 활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과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수특위 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행수특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8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수특위는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발판으로 개헌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국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장께

서도 언급하신 국회 전체 이전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특위

세종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각종 시설물 현장점검 통해 223건 개선 조치 완료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제4기 공공특위’는 각종 도로·공원 및 녹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예술의전당 등 공공시설물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0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금까지 223건을 조치 완료했다. 현재 28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반곡동 및 해밀동 복겸 누수 등 특위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미조치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해 ‘뽕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공공특위 및 시민점검반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 고되지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원 내 테크 등 공공시설물에서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소한 위험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 자체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조치한 이후에 특위 및 시민점검반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시설물의 인수 과정은 물론 인수 후에도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와 시민참여 특별점검반 위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제4기 공공특위 활동을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 원구성 이후 제5기 공공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대학캠퍼스특위 — 8

제9차 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 특위)는 2월 24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대학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가 대학유치 업무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미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학유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지난 2년여간 집행부 및 관계기관 등과 공조 활동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9번의 회의 개최 ▲각종 관계기관과의 토

론회 ▲충청권 7개 대학 및 용역기관과의 간담회 ▲대학부지 현장 방문 ▲대학유치 지원 조례 제·개정 ▲대학유치 용역 실행 제안 등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세종시의 대학유치 실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학유치의 당위성 확보 및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개별캠퍼스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공동캠퍼스가 조속히 확정되어 대학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균형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MIND MAP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도로점용 공시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왜 필요하지?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현장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관계 법령: '도로법' 등

조례 적용 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중 70% 이상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함



조례 공포일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언제부터?



- 2022.3.4. 채평석 의원 외 5명 발의
- 2021.3.29.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수정 가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뭐가 바뀌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1. 1개 차로 이상 통행을 막고 점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 대책 수립
2.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교통소통대책을 변경 제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 2022.3.4. 이순열 의원 외 4명 발의
- 2022.3.29.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원안 가결

조례 공포일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언제부터?

뭐가 바뀌는데?



1. 시민이 쉽게 확인할 있도록 해체 공사 관련 안내 표지판 설치
2.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정기 및 특별 교육을 실시
3.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 현장에 대하여 누구나 확인 요청 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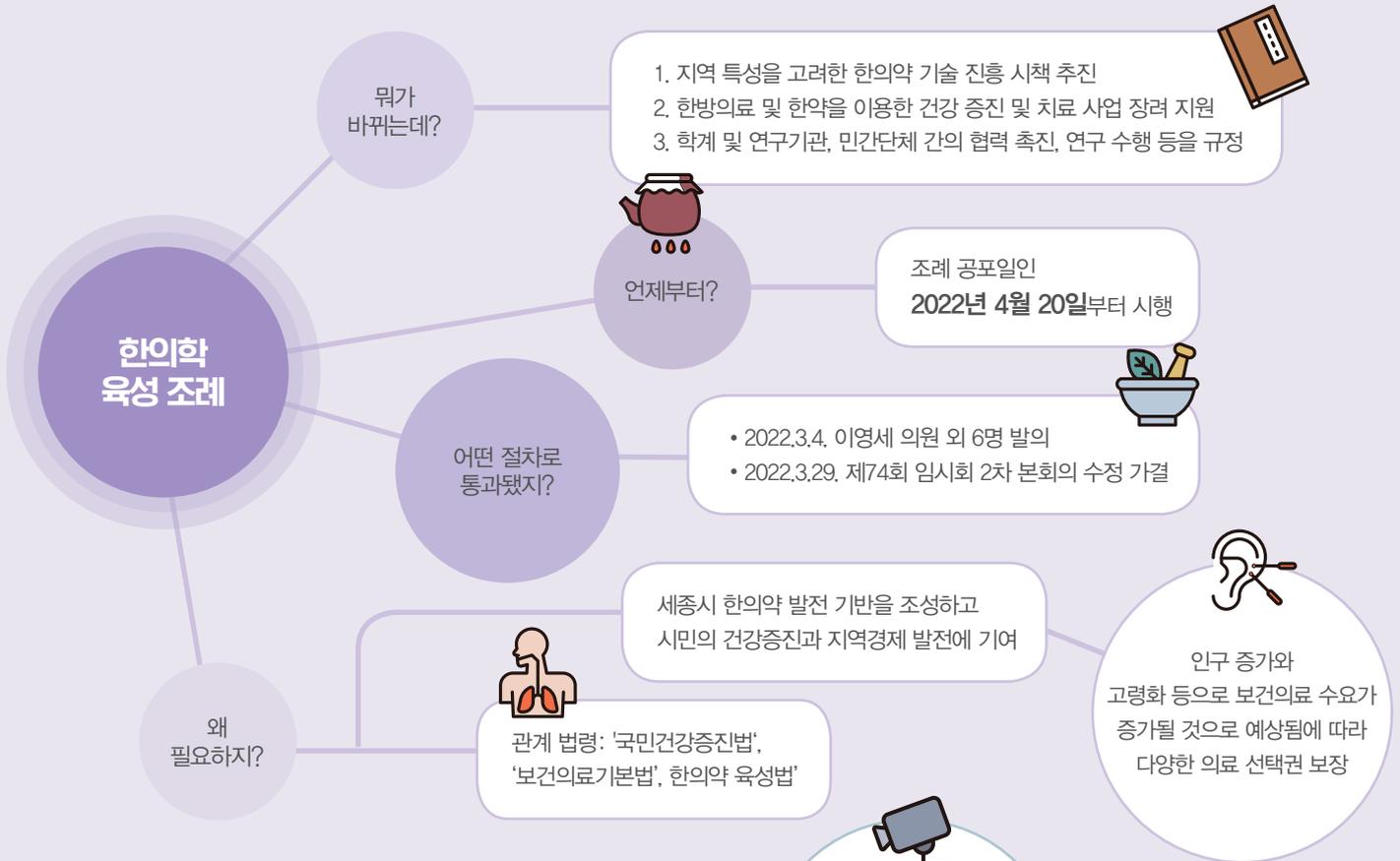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등

왜 필요하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연론이 본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지역민 든든한 대변인 되길



충청투데이 세종본부
강대목 기자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특별한 행보가
미래 세종시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민의 든든한 대변인이다. 시민들이 소중히 한 표를 통해 가슴에 심어준 ‘의원 배지’의 무게를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닌다.

그 의무의 시작은 지역민과의 소통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이 의원의 주된 행보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의 본연적 역할은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경청하느냐에 따라 의원들 목소리의 가치가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타지역에 비해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역사적 대장정을 이어가는 곳이다.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허허벌판의 대지를 세계적 일류 도시로 일구는 역사적 현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시인 만큼 지역민들의 열망이 크다.

세종시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위헌 판결, 세종시 수정론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신도심 성장과정에서 홍역을 앓듯 ‘공무원 도시’, ‘베드타운’, ‘상가 공실’이라는 꼬리표도 끊이질 않았다. 이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은 다양한 외침을 전했고, 그 길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회 의원들이 동행했다.

세종시의회는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 출범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적 시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것. 세종시의회는 지난 10년간 균

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의회가 펼쳐온 행정수도 완성의 밑그림을 들춰보자면,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담론’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초대 의회부터 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요건 충족’을 전략적으로 요구했다.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세종시의회의 제안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16년 7월에는 세종시의회 제38회 정례회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8년 10월 제52회 임시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다.

2019년 12월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에서 ‘최대 규모 국회 이전론’이 부각된 데 이어, 그해 12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2021년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 국회 분원 설치가 총 147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의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각각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의 연대와 지지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세종시의회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시 어진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향후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국회 간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도 세종시의회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행정수도와 자족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창업환경 구축,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없는 선순환 복지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향후 인구 증가세를 고려한 주택 적기 공급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지역의 발전방안도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숙제를 안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을 넘어선 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특별한 행보가 미래 세종도시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충북일보] 2022. 01. 18.

충북일보

2022년 01월 18일
16면 (지역)

시의회 인사위 위촉... 첫 회의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범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행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하고 17일 의정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시의회 인사 운영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청매일] 2022. 02. 04.

충청매일

2022년 02월 04일
06면 (충청)

세종시의회,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

국회 서기관 황현희 입법자문위원 파견 근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3일부터 국회 서기관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이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회 파견 인원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조력인 검토를 비롯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과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은 지난 1996년 에 국회 공채로 입직된 이후 기초조정

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와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 입법 활동 등 의회 고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 간 상생 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준기자

2022년 상반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의정활동



[충청투데이] 2022. 03. 14.

충청투데이

세종시의회, 지방자치 견인 다양한 행보 '주목'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 브리핑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 국회 서기관 입법자문위원에 배치 지역영 손실 보상 품목의 실행 예정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끄는 각종 성과를 도출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은 11일 의정활동 성과 및 제3대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주제로 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2일부터 국회 서기관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제74회 임시회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식적인 활동의 마무리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는 때보다 더 품격이 심미고 내실 있게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제74회 임시회 활동사항을 전달했다. 순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중심으로, 복지·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부합하고 있는지 위원님들과 세심한 살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세종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교육 자원 조례" 등을 대표했다. 유철규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상향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자치위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입장차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결했다. 안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반드시 넘기고 조속한 시일내 일상과 생업에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는 '세종시 세종신원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소상공인 자영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체육, 학교에서의 인성을 어우러진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 교육청 교내안전 기본 조례안', '세종시 교육청 학교인사시간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김대욱 기자

[충남일보] 2022. 01. 19.

충남일보

2022년 01월 19일
08면 (충남)

전국 시·도의회장協, 세종시 '첫출발'

세종청사로 사무실 이전... 개소식 후 올해 첫 회의 부당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구제 등 12개 안건 논의

전국 시·도의회와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어진동에 자리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올해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 임시회에 앞서 서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지 분권 상징도시인 세종시로 지난해말 이전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도 가졌다.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

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임시회에서 첫 발의를 이룬 사이다.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22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19일 어진동에 위치한 대동명기복관 현정 방문을 끝으로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친다.

세종=김동욱 기자

(11.24.5Kcr)

[충청타임즈] 2022. 02. 21.

충청타임즈

2022년 02월 21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행감 '시민의 눈' 보낸다

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청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팩스(044-300-7219)로 전송하면 된다.

이태환 의장은 "상시 시민제보의 취지는 열린 자세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데 있다"며 "시민제보를 적극 검토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청과 교육행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총선참정기자

sony2272@ccctimes.kr

(11.24.5Kcr)



[대전투데이] 2022. 03. 30.

[충청일보] 2022. 03. 28.

忠淸日報
2022년 03월 28일 (종합)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올 1회 추경 의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27일 일시의 기간 중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결산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1회 추가결산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3.24%) 증가한 1조9839억원과 24억원(0.3%) 증가한 8728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최근 코로나19 오피스워킹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로 인해 지체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확충된 편상과 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오피스워킹 확산에 따른 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적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추가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진척을 주제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세종시의회 4기 예결특위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7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4대 의회 개원 이후 의결의 집행부의 노력으로 세종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향후 마중물(補正) 예산의 지체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도 시일이 행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에 예결위의 위임장들과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2022년도 1회 예산안 및 시교육청의 추가결산 예산안은 오는 29일 7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영자 기자 (23.34.61cr)



[대전일보] 2022. 04. 18.

[충남일보] 2022. 04. 20.

忠南日報
2022년 04월 20일 02면 (종합)

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인사

의회 자체 승진 · 후속 전보인사 단행으로 인사권 독립 본격화

세종시의회는 지난 19일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예산 · 결산분석 및 평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

세종시 올해 예산은 1조9839억원, 교육청 8728억원 등 약 3조원 규모

로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 추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의회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대중 사무처장을 2급(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홍순제 운영지원담당장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안영욱 주무관을 홍보기획담당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세종=김공예 기자 (17.9-6.5)cm

大田日報
2022년 04월 18일 16면 (인물)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세종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 모니터링 인원과 연령대를 확대한 제 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위촉했다.<사진> 제 3기 의정모니터단은 기존 인원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지역별 인비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차원 기능 연령도 10세에서 10세 이하로 낮추

[충청신문] 2022. 05. 02.

충청신문
2022년 05월 02일 06면 (종합)

세종시의회 '광역 입법 실적' 전국 1위

연평균 조례 발의 6.5건 전국평균 2배 이상 많아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 실적 분석 결과에서 연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Big Hill Analytics'와 함께 17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99건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 역시 22.68건으로 전체 평균대비 2배 많았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연평균 1건 미만 입법 실적을 가진 의원 명단에 단 한 명의 의원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4년간 의회 입법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 방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n.net (11.2-12.0)cr

大田日報
2022년 05월 13일 16면 (인물)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상생협력 협약

세종시의회가 12일 제주도의회와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양 의회가 지역균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10.4-10.2)cr

[대전일보] 2022. 05. 13.

특별한 여행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다!
세종시에만 있는
이색 명소

우주측지관측센터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대통령기록관

〇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 여행의 백미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똑같은 여정이 아닌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있다.

다른 곳에 없어 더욱 특별한 세종시의 유일무이한 명소를 소개한다.

〇〇

1

국내 유일 우주 측량 연구소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 시간 | 10시~17시(점심 12시~13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주 소 | 연기면 월산공단로 276-71
입 장 료 | 무료(신분증 지참)
문 의 | 044-860-4007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중 하나다. 우주측지관측센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우주 측량을 위한 연구소로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08년에 설립됐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16번째이자 아시아에서 3번째로 초정밀 우주측지기술 장비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측센터는 직경 22m, 높이 28m의 우주 측지 시스템인 VLBI 안테나와 수신기, 데이터 처리장치 등 주요 관측장비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첨단 관측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방문객들을 위해 우주측지기술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작동 모형 등을 전시해 놓은 홍보관을 상시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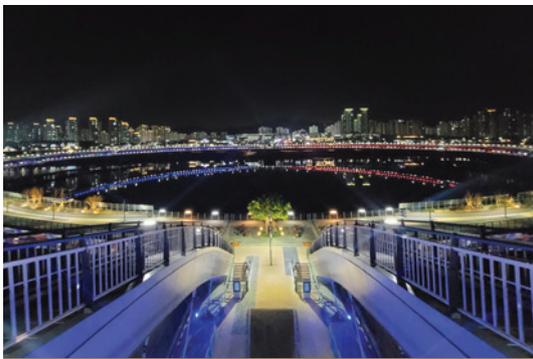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정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심 외곽이 아닌 세종시 중앙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축구장 90개 규모인 65ha 면적에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정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원이 조성돼 있다. 20여 개의 다양한 주제로 2,834종 172만 본에 달하는 식물을 전시해 놓고 있어 가족 단위로 식물 체험 교육과 휴식 시간을 갖는 데 손색이 없다. 주요 관람 코스로는 언제나 푸른 식물을 볼 수 있는 세계절전시온실과 선조들의 멋과 풍류를 재현한 한국전통정원 등이 있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각종 전시 및 행사,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예약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 | 9시~18시(17시까지 입장 / 3~10월)
주 소 | 연기면 수목원로 136
입 장 료 | 어른 5천 원 / 청소년 4천 원 / 어린이 3천 원
문 의 | 044-251-0001



운영 시간 | 6시~23시(연중 무휴)
주 소 | 연기면 세종리 29-111
입 장 료 | 없음



원형 길 따라 금강 한바퀴

이응다리

보람동 세종시청사 인근에는 금강을 연결하는 원형 보행교가 설치돼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돼 세종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리기 위해 금강 보행교의 전체 길이는 1,446m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교로 공식 명칭은 원형의 'ㅇ(이응)'을 닮았다고 해서 '이응다리'다. 세종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형상화하는 독창적 원형 구조로 개통 전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응다리는 북측으로 이뤄져 있으며 하부층은 자전거 전용, 상부층은 보행자 전용 도로다. 일몰 후부터는 금강보행교의 외관을 비추는 각종 조명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기록이 한자리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2016년 1월 개관했으며 국내 보관함을 형상화한 유리 큐브 모양의 외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각종 기록물과 행정 물품, 세계 각국의 기념품, 의전 차량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등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에는 대통령을 주제로 한 교육 놀이 공간인 어린이체험관이 있다. 6월 말부터는 제19대 대통령 재임 시절 일부 기록물을 새롭게 전시해 놓고 있어 뜻 깊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인근에 세종호수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이다.



운영 시간 | 10시~18시(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어린이날 개관)
주 소 | 다솜로 250(어진동)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44-211-2000(ARS)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주년 기념

누구나 참여가능한 100초 영상제

영상콘텐츠 공모전

공모기간 2022. 6. 13.(월) ~ 8. 22.(월)
공모주제 세종시의회 관련(세종시의회, 시민소통의회, 행정수도, 균형발전 등 세종시 의정 관련)
출품수 개인 또는 팀으로 1명에 한함
제출규격 분량(100초 이내), 영상크기(1920×1080), 형식(MP4, H.264)
제출서류 작품파일, 참가신청서, 출품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세종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공지사항 확인

시상내역

구분	준격	탑수	시상금
일반 (대학생 이상)	의류상	1	50만원
	배급상	1	20만원
	누락상	3	10만원
청소년 (초,중,고 이하)	의류상	1	50만원
	배급상	1	20만원
	누락상	3	10만원
총 계		10	200만원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mkmonster1@naver.com)
결과발표 2022. 8월 말(개별통보)
문의사항 세종시의회 영상공모전 사무국(영계미은서 T.070-8984-3535)

세종시 의회 10년 |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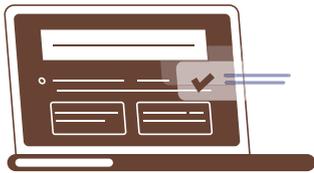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중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담당자 박천국)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보러 가기 counciltv.sejong.go.kr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248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